

I. 서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은 공회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행22:30) 바울의 재판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공부하면서 교훈과 은혜를 받도록 하겠다.

II. 본론

1. 본문 1- 5절에 나타난 문제

1)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는 대제사장의 말에 왜 그를 저주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

- 바울이 혼자서 극복하기 힘든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 입을 치라는 대제사장을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대제사장을 책망하기 위해서
-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자신을 치라는 불법재판에 항의하기 위해서

2)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한 말은 사실인가?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인가?

첫 번째 견해 -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정말 몰랐고 그래서 대제사장 권위를 인정했다.

두 번째 견해 -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 인 것을 알았지만 살기 위해서 사과했다.

2. 본문 6-10절에 나타난 문제

첫 번째 견해 - 바울을 옹호하며 변호해 주는 해석

바울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수한 의도에서 부활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들의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다투고 싸워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두 번째 견해 - 바울이 실수했다고 보는 해석

바울은 재판이 자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묘수를 써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부활 문제를 꺼내어 편 가르기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투게 함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게 했다.

어느 의견이 받아들여느냐가 중요하지가 않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나가야 한다.

3.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있던 그 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11절)

그날 밤이란 어떤 밤인가? - 죽음의 위협을 계속 당했던 밤, 자신의 실수로 괴로워하던 밤

1)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 주님은 힘들 때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시다.(행 18:9-10, 27:24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창15:1-5절),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모든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

2) 실수하고 괴로워할 때 찾아와 격려하시고 사명을 주신다. -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3)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III. 결론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행 23:11)

통독

이번 주 통독 말씀

10/12(월)	10/13(화)	10/14(수)	10/15(목)	10/16(금)	10/17(토)
눅 21-24장	요 1-4장	요 5-8장	요 9-12장	요 13-16장	요 17-21장

QT

이번 주 QT 말씀

10/12(월)	10/13(화)	10/14(수)	10/15(목)	10/16(금)	10/17(토)	10/18(주일)
렘 46:13-28	렘 47:1-7	렘 48:1-25	렘 48:26-25	렘 48:36-47	렘 49:1-6	렘 49:7-22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2. 자신의 입을 치라는 대제사장의 명령에 바울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의 생각을 가볍게 나누어 보세요.
3. 바울의 대제사장인줄을 몰랐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나친 논쟁을 삼가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4. 본문에 나오는 6-10절에서 바울의 말과 모습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나친 논쟁을 삼가고 단순히 자신의 견해만 이야기해 보세요.
5. 자신이 실수하여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지고 어렵고 힘들어 낙심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일이 있으면 서로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